

맑스의 전형과 화폐의 가치*

김 창 근**

논문초록 | 맑스의 가치론은 화폐상품 가치의 전형과 불환지폐의 등장이라는 이중의 곤란한 문제에 직면해 왔다. 이 논문은 맑스의 상품화폐의 가치결정 문제를 다루는데, 상품화폐의 가치는 지대의 존재 때문에 그 생산가격으로 전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런 해석에 기초하면 맑스의 화폐론은 논리적 순환론을 피하면서도 노동시간과 상품화폐의 양적 관계를 단일하게 확립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 화폐상품에 대한 본 논문의 연구는 불환지폐의 가치결정 연구에도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핵심 주제어: 맑스, 전형, 화폐의 가치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B3, 11

* 이 논문은 2005 경제학 공동학술대회(2005년 2월 24일-25일, 중앙대학교)의 사회경제학회 분과회의에서 발표된 글을 수정·보완한 것으로, 2005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다(KRF-2005-005-J00201).

**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연구교수, e-mail: Changkn1960@naver.com

I. 서론

맑스는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와 『자본론』 1권 1편에서 상품화폐론을 제시하였는데, 이 이론에 따르면 화폐는 상품이고 상품화폐의 가치는 화폐상품을 생산하는 데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에 의해 결정된다.¹⁾ 이러한 맑스의 상품화폐론은 맑스의 가치론과 화폐론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맑스의 상품화폐론에서 화폐는 상품이기에 때문에, 상품생산의 발전에 따라 화폐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됨을 설명할 수 있고, 상품들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노동가치론을 화폐상품에도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화폐의 가치가 금 생산부문의 ‘생산’조건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화폐의 가치는 국가와 같은 외부적인 요인 또는 인간심리와 같은 주관적인 요인이 아니라, 상품생산에 내재적이며 객관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 나아가 맑스의 상품화폐론은 논리적 순환론인 신고전학파의 화폐수량설을 극복할 수 있게 해 준다.

맑스의 경우 금과 같은 화폐상품의 가치는 금생산부문의 금 생산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화폐상품이 화폐로서 유통에 들어갈 때 그 가치는 이미 주어져 있고”, 이렇게 화폐상품의 가치가 논리적으로 우선 주어져 있기 때문에 “상품은 그 가격에 의해 이미 상상적인 일정한 화폐량에 등치되고”, “필요한 유통수단의 양은 이미 상품들의 가격총액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²⁾

그래서 맑스의 경우 화폐상품의 가치는 금생산부문에서 사용하는 생산수단의 가치를 제외하면, ‘논리적’으로는 유통영역에 등장하는 다른 상품들의 가격들과 독립적으로, 그리고 그것에 선행하여 화폐상품의 ‘생산’영역에서 결정된다. 그리고 이렇게 결정된 화폐상품의 가치에 기초하여 다른 상품들의 가격이 결정되고, 상품들의 가격총액에 따라 ‘필요 유통화폐량’이 결정되며, 그것을 초과하는 화폐는 퇴장화폐를 형성한다. 그래서 논리적 결정 순서는 화폐의 가치→상품 가격→필요 유통화폐량이며, 여기에서는 어떠한 논리적 순환론적 요소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³⁾

1) “화폐 자신의 가치는 화폐의 생산에 소요되는 노동시간에 의해 결정되며, 동일한 양의 노동시간이 응고된 다른 상품의 양으로 표현된다(『자본론』 1권; 118).”

2) 『자본론』, 1권; 118, 150. 아래에서는 화폐상품이 금이라고 간주한다.

3) 여기에서 화폐의 가치가 불변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화폐의 가치가 변하면 모든 상품들의 가격은 그런 변화에 반비례하여 변한다. 여기에서 강조하는 점은 가치결정의 ‘논리적인’ 선후관계이며, 화폐의 가치 결정이 상품들의 가격 결정에 논리적으로 선행해야 한다는

반면 화폐수량설에서는 화폐의 가치가 일정한 화폐량으로 구매할 수 있는 상품들의 양들인 ‘화폐의 구매력’으로 정의된다. 그런데 화폐의 구매력을 알기 위해서는 상품들의 가격이 먼저 결정되어 있어야 하고, 또한 상품들의 가격들을 알 수 있기 위해서는 화폐의 가치가 먼저 알려져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 경우 화폐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상품들의 가치를 알아야 하고, 상품들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다시 화폐의 가치를 알아야 하는 ‘논리적 순환론’에 빠진다.

화폐수량설이 이렇게 논리적 순환론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이론에서 화폐의 가치와 상품들의 가격들 중 어느 하나가 먼저 결정될 수 없게 되기 때문인데, 그것이 논리적 순환론에서 빠져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화폐의 가치와 상품들의 가격이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동시’에 결정되는 것뿐이다. 하지만 이 경우 화폐수량설은 “상품은 가격을 가지지 않고”, “화폐도 가치를 가지지 않고” “유통에 들어가..... 거기에서 상품집단의 일정한 부분이 귀금속 더미의 일정한 부분과 교환된다”라는 ‘엔터리 가설’이 된다.⁴⁾ 또한 화폐의 가치가 상품들의 유통 이전에 미리 결정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상품들의 가격이 유통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결정될 수 없다면, 상품들은 판매를 위해 유통에 들어갈 수 없다.⁵⁾

반면 막스의 상품화폐론은 이러한 화폐수량설의 논리적 순환론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데, 다른 상품들의 가격 결정과 독립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그것에 선행하여 유통 이전에 화폐의 가치가 결정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결정된 상품의 가치에 따라 상품들의 가격은 결정될 수 있고, 상품들은 가격을 가지고 유통에 들어가서 판매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막스의 상품화폐론은 가치론과 관련해서도 중요하다. 상품화폐론에서 화폐의 가치가 금생산부문의 노동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일정한 금생산 노동시간은 일정량의 화폐량으로 표현된다. 금 생산부문에서의 이런 표현이 주어지면, 다른

점이다.

- 4) 막스는 다른 측면에서도 화폐수량설을 비판한다. 그는 첫째, 화폐수량설이 퇴장화폐를 무시하고 한 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화폐량이 유통된다고 생각한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하고, 둘째 “같은 단위로 측정될 수 없는 사용가치들이 어떻게 한 덩어리가 되어 한 나라에 존재하는 금과 은의 총량과 교환되는가는 전혀 알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한다. (『자본론』 1권; 158)
- 5) 신고전학과 화폐론의 논리적 순환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자들에 의해 인정되고 있는데, 오스트리아 학파가 신고전학파의 틀 내에서 이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노력에 대해서는 홍훈 (2000; 184-222)을 보라.

생산부문에서 지출된 노동시간도 일정한 화폐량으로 표현될 수 있다.⁶⁾ 맑스는 이러한 표현을 ‘노동시간의 화폐적 표현(monetary expression of labour-time, m)’이라고 부르는데,⁷⁾ 그것은 맑스의 전형(잉여가치와 상품 가치의 이윤과 생산가격으로의 전형)과 관련해서도 중요하다. 이 표현이 주어지게 되면 다른 상품들의 가치는 일정한 노동시간뿐만 아니라 일정한 화폐액인 가격으로 표현될 수 있고, 화폐로 표현된 상품의 가치는 또 다른 크기의 화폐 가격인 ‘생산가격’으로 전형될 수 있다.

그런데 맑스 이후의 맑시스트 경제학자들은 맑스의 상품화폐론을 고수하는데 이중적인 어려움을 겪는다. 첫 번째 곤란은 맑스의 가치론을 화폐상품에 적용하려 할 때 생겨난다. 맑스의 가치론에 따르면, 발전된 자본주의에서 상품들은 ‘노동가치’대로 판매되지 않고 전형된 ‘생산가격’에 따라 판매되는 경향이 있다.⁸⁾ 그리고 맑스의 상품화폐론에서 화폐도 상품이기에 때문에, 상품화폐에 가치론을 엄격하게 적용시키면 상품화폐의 가치가 그 생산가격으로 전형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 경우 가치의 내재적 척도인 노동시간과 외재적 척도인 화폐의 가치관계가 이원화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문제는 화폐가 상품일 때 나타나는 곤란이다. 반면 두 번째 곤란은 자본주의 현실에서 화폐가 더 이상 금과 같은 화폐상품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나타나는데, 적어도 1971년 미국의 금태환 중지 이후에는 금과의 태환성이 보장되지 않는 불환지폐만이 공식적으로 화폐 역할을 하고 있다. 불환지폐의 가치는 금의 가치와는 무관하게 결정되기 때문에, 맑스의 상품화폐론은 불환지폐의 가치결정을 설명할 수 없어 보인다. 이 문제는 첫 번째 문제와는 반대로 화폐가 상품이 아닐 때 나타나는 곤란이다.

6) “가치척도로서의 화폐는 상품들에 내재하는 가치척도, 즉 노동시간의 필연적인 현상형태이다(『자본론』 1권; 120).”

7) ‘노동시간의 화폐적 표현’은 1단위의 직접 노동시간이 얼마만큼의 화폐액으로 표현되는가를 나타내며, 단위 노동시간당 임금과는 다르다. 맑스가 『자본론』 1권 6장에서 잉여가치를 설명하면서 하나의 예를 들고 있다. 이 예에서 노동자는 하루 12시간 노동하는데, 12시간 노동은 6원의 가치를 창조하지만 노동자는 하루 임금으로 3원만을 받는다. 여기에서 1시간의 노동시간은 0.5원의 가치로 표현되지만, 시간당 임금은 0.25원에 불과하다. 맑스의 화폐 가치는 ‘노동시간의 화폐적 표현’의 역수인데, 1시간의 노동시간이 0.5원으로 표현된다면 1원의 화폐의 가치는 2시간의 직간접적인 노동에 의해 결정된다.

8) 이 논문에서 ‘노동가치’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직간접적인 노동에 의해 결정되는 상품의 가치’를 가리킨다. 맑스의 ‘가치’를 이렇게 ‘노동가치’로 바꾸어 부르는 것은 이 논문에서는 맑스의 ‘가치’와 ‘생산가격’ 외에도 여러 가지 형태의 가치들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맑스의 가치론에 기초하여 위의 첫 번째 곤란을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⁹⁾ 이 문제는 상품화폐의 가치가 전형되는가의 문제인데, 이 글은 전형에 대한 최근의 새로운 해석인 시점간 단일체계 해석(Temporal Single System Interpretation)에 기초한다.¹⁰⁾ 2절에서는 전형논쟁에서 나타난 보르트키예비츠(Bortkiewicz) 등의 신리카도학과, 새 해석(New Interpretation)의 폴리(Foley), 그리고 시점간 단일체계 해석의 화폐에 대한 논의를 고찰하는데, 특히 가치척도의 이원화와 논리적 순환론, 그리고 노동시간과 화폐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3절에서는 상품화폐의 가치결정 문제를 다루는데, 어떻게 논리적 순환론을 피하면서도 노동시간과 상품화폐의 양적 관계를 단일하게 확립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춘다. 거의 모든 기존의 논의들은 상품화폐도 상품이기에 그 가치가 생산가격으로 전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논문은 1) 맑스의 화폐상품의 가치는 그 생산가격으로 전형될 수 없으며, 2) 광산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로 전형되지도 않는다고 주장할 것이다. 4절에서는 이 논문의 함의를 간략하게 고찰한다.

II. 전형논쟁과 화폐의 가치

보르트키예비츠(1907b)에서부터 시작된 전형논쟁에서 화폐의 가치 결정 문제는 크게 관심을 받지 못했다. 보르트키예비츠는 명시적으로 금생산부문을 고려하지만, 이후의 논쟁과정에서 화폐에 대한 논의는 거의 사라져 버렸다. 이후에 새 해석의 폴리가 전형에 대해 논의하면서 ‘화폐의 가치’ 개념을 사용하면서 전형에서 화폐가 가지는 의미가 강조되기 시작했고, 최근의 시점간 단일체계 해석은 ‘노동시간의 화폐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먼저 보르트키예비츠와 신리카도학파가 어떻게 화폐의 가치를 취급하는가를 살펴보자.

9) 다른 문제인 불환지폐의 가치결정에 대해서는 이채언(2002)과 김창근(2005a)을 참조할 수 있다.

10) 시점간 단일체계 접근에 대한 소개로는 김창근(2005b)을 참조.

1. 신리카도학파의 화폐

(1) 보르트키예비츠의 금생산부문

보르트키예비츠(1907b)는 맑스가 “가치와 가격 계산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충분히 엄격하게 분리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하고,¹¹⁾ 상품들의 가치체계와 가격체계가 ‘엄격하게 분리된’ 동시적 이원체계를 구성한다(Bortkiewicz, 1907b; p. 241). 보르트키예비츠는 3부문 모형에서 맑스의 전형을 논하지만, 화폐에 대한 그의 논의를 신리카도학파의 일반화된 동시적 이원체계에서 살펴보자.¹²⁾

$$\text{가치체계: } \lambda = A\lambda + l = A\lambda + w\lambda + \sigma \quad (1)$$

$$\text{가격체계: } p = (Ap + wp)(1 + r) \quad (2)$$

먼저 가치체계에서는 n 개의 식과 n 개의 미지수 λ_i 가 존재하므로, 상품의 노동가치 λ_i 는 절대값으로 구해진다. 여기에서 λ_i 는 그 생산에 필요한 생산수단에 지출된 간접적 노동 $A_i\lambda$ 와 직접적 노동 l_i 의 합에 의해 결정되는데, $A_i\lambda$ 와 l_i 가 노동시간으로 측정되기 때문에 λ_i 도 노동시간이라는 차원을 가진다. 반면 가격체계에는 식

11) 보르트키예비츠는 맑스의 전형과 관련해서 1907년에 두 개의 글을 썼는데, 첫 번째 글은 Bortkiewicz(1907a), “Value and Price in the Marxian System”이고, 두 번째 글은 Bortkiewicz(1907b), “On the Correction of Marx’s Fundamental Theoretical Construction in Third Volume of *Capital*”이다. 폴 스위찌(Sweezy)가 두 번째 논문을 자신의 저서, Sweezy, (1942), ‘*The Theory of Capitalist Development*’에서 소개하면서, 전형 논쟁이 일어났다. 이런 이유 때문에 두 번째 논문은 상대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첫 번째 논문은 상대적으로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첫 번째 저서에는 보르트키예비츠의 방법론, 특히 화폐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잘 나타나 있다.

12) 여기에서 일정한 자본주의 경제에 n 개의 기초재가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λ 와 p 는 각각 i 재 한 단위의 노동가치와 생산가격 λ_i 와 p_i 들을 원소로 하는 $n \times 1$ 벡터이고, A 는 i 재 한 단위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j 상품의 양 a_{ij} 들을 원소로 하는 $n \times n$ 행렬이다. l 은 i 재 한 단위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직접노동의 양 l_i 들을 원소로 하는 $n \times 1$ 벡터이고, w 는 i 재 한 단위를 생산하는데 i 부문의 노동자들이 필요로 하는 j 재의 양 w_{ij} 를 원소로 하는 $n \times n$ 차원의 실물임금 벡터이다. σ 는 i 상품 한 단위에 포함된 잉여가치인 σ_i 들을 원소로 하는 $n \times 1$ 벡터이고, r 은 이윤율인데 모든 일반이윤율로 모든 생산부문에 균등화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하기 때문에 스칼라이다.

이 n 개이지만 미지수는 n 개의 가격 p_i 들과 이윤율 r 로 총 $n+1$ 개이다. 이 경우 식보다 미지수가 더 많기 때문에, 이윤율 r 이 먼저 결정되지 않는다면, 가격 p_i 들도 구할 수 없다.

위의 가격체계는 보르트키예비츠(1907a, b)가 처음 제시했고, 스라파(Sraffa, 1960)가 n 개 부문으로 확장시킨 ‘상품들에 의한 상품생산’ 체계이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인간노동이 상품가치의 실체이고 잉여노동이 이윤의 원천이라는 맑스의 가치론을 부인하기 때문에, 이윤율 r 을 인간노동에 의존하지 않고 가격체계 자체에서 구하려 시도한다. 그들은 먼저 위의 두 체계의 좌변과 우변에 포함되어 있는 투입물과 산출물의 가격이 동시적으로 결정된다고 가정한다. 그러면 가격체계에서 이윤율 r 과 상대가격 p_i/p_j 를 구할 수 있다.¹³⁾

하지만 위의 두 체계는 보르트키예비츠가 말하고 있는 ‘가치와 가격 계산이라는 두 가지 원칙’, 즉 두 개의 상이한 가치결정 원리를 결합하고 있을 뿐이다. 먼저 가치체계에서 상품들의 가치 λ 는 기술적 조건 A 와 인간노동 l 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 체계는 사실상 리카도의 상품가치 이론일 뿐이다. 반면 가격체계는 스라파의 ‘상품체계’로서 가치체계와는 무관하게 구성되었다. 상품 가치 λ 는 가격체계의 가격 p 와 이윤율 r 을 결정하는 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윤율 r 과 상대가격 p_i/p_j 는 l 과 λ_i 에 무관하고 그것들과 독립적으로 가격체계의 A 와 w 에 의해서만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¹⁴⁾ 여기에서 A 와 w 는 각각 상품들의 기술적 관계와 분배적 관계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윤율과 상대가격은 상품들의 양적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가격체계에서 상품의 가치결정 원리는 상품들의 양적 관계로, 이 체계는 맑스의 노동가치론과는 무관하다. 그리고 λ_i 들과 p_i 들이 각각 상이한 가치

13) 신리카도학파는 가치체계의 도움 없이 가격체계 자체에서 이윤율과 상대가격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맑스의 가치론이 불필요(redundant)하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에 대한 비판은 김창근(2005)의 3장을 참조하라.

14) 일반적으로 신리카도학파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상품 단위당 실물임금 $w_i(1 \times n \text{백트})$ 가 아니라, 노동 단위당 지불되는 실물임금 바스켓인 $1 \times n$ 의 벡터 B 로 표현한다. 그러면 식 (2)에 포함된 임금 wp 는 Bpl 이 되기 때문에, 이윤율 r 은 직접적으로 직접노동 l 에 의해서도 결정되는 듯이 보인다. 하지만 신리카도학파의 이윤율 r 은 l 에 직접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상품 단위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투입계수 A 와 실물임금 w 만으로 구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윤율이 노동과 무관하게 생산에 필요한 물질적인 양적 관계만으로 구해진다는 의미에서, 식 (2)는 물량체계(physical system)라 불린다. 이런 물량체계는 이윤율이 인간노동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맑스의 가치론과는 무관하다.

결정 원리에 기초하여 서로 분리되어 결정되기 때문에, 위의 두 체계는 ‘이원체계 (dual system)’라고 불린다.

그런데 이원체계에서는 λ_i 들과 p_i 들이 서로 다른 가치결정 원리에 의해 분리되어 결정되기 때문에 서로 상이한 두 개의 차원을 가진다. λ_i 는 일정한 노동시간인 반면, p_i 는 일정한 ‘가격’으로 ‘가정’된다. 그리고 이렇게 차원이 상이하면, 두 체계의 가치량들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그렇다면 맑스의 가치론의 양적 (비)정합을 논의할 수도 없다. 그래서 보르트키예비츠는 금 상품을 명시적으로 도입함으로써 두 체계의 가치량을 비교하려 시도한다. 그는 금의 가치가 금의 생산부문인 g부문에서 결정되고, 금이 상품이기 때문에 금의 가치도 노동가치와 생산가격으로 ‘이원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먼저 금의 노동가치는 가치체계에서 $\lambda_g = A_g \lambda + l_g$ 에 의해 결정된다.¹⁵⁾ 그리고 가치체계에서 이미 결정되어 있는 총노동가치 $Q\lambda$ 와 총잉여가치 $Q\sigma$ 는 각각 일정량의 금양 $(Q\lambda)/\lambda_g$ 와 $(Q\sigma)/\lambda_g$ 로 표현된다.¹⁶⁾ 또한 금의 생산가격 p_g 도 존재하는데, 그것은 가격체계에서 $(A_g p + w_g p)(1+r)$ 에 의해 결정된다.¹⁷⁾ 그러면 이제 총가격 Qp 과 총이윤 $rQ(Ap + wp)$ 도 각각 Qp/p_g 과 총이윤 $rQ(Ap + wp)/p_g$ 라는 일정한 금양으로 표현된다. 이렇게 금 화폐를 도입하게 되면 양 체계의 가치총량은 모두 일정한 금양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이원체계의 가치총량들을 양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 그런데 아직 금의 노동가치 λ_g 와 생산가격 p_g 의 크기가 동일한가, 즉 $\lambda_g = p_g$ 인가의 문제가 남는다.

보르트키예비츠는 맑스가 “항상 금.....이 상품과 교환되는 비율이 일반적인 가치와 가격의 법칙에 종속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했다면서, “가격단위가 가치단위와 동일해야 한다는 조건에 전혀 얽매이지 않고”, “[가치단위]가 1온스의 금에 의해 표현된다면, [가격단위]는 $\frac{3}{4}$ 온스 또는 $1\frac{1}{2}$ 온스의 금에 의해 표현될 수 있다”고 주장

15) A_g 는 금 1단위의 생산에 필요한 j 상품의 양 a_{gj} 를 원소로 하는 $1 \times n$ 행렬이다.

16) Q_i 는 i 부문의 산출량이고, Q 는 Q_i 를 요소로 하는 $1 \times n$ 행렬이다.

17) 사실 금의 생산‘가격’이라는 표현은 동어반복일 뿐이다. 왜냐하면 가격은 상품의 가치를 일정한 양의 화폐액으로 표현한 것인데, 금 1온스의 ‘가격’을 금으로 표현하면, 금 1온스일 수밖에 없다. 즉, 금 1온스=금 1온스이다. 달리 표현하면 정의상 $p_g \equiv 1$ 일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에서 맑스는 ‘화폐는 가치를 가질 뿐이지 가격을 가지지는 않는다’고 여러 번 주장했다. 여기에서는 보르트키예비츠 처럼, p_g 가 1이 아닐 수도 있다고 가정한다.

한다(1907a: 243, 245). 즉, 금의 가치도 ‘일반적인 가치와 가격의 법칙’에 따라 전형되어야 하는데, 금 생산부문에서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사회적 평균인 경우는 우연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회적 평균 이상이거나 또는 이하라고 가정해야 한다. 그래서 금의 노동가치 λ_g 와 생산가격 p_g 가 일반적으로 상이한 크기이고, 예를 들어 $\lambda_g = 1$ 일 때 p_g 는 $\frac{4}{3}$ 또는 $\frac{2}{3}$ 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처음에 상이한 가치결정 원리에 의해 구성되었기 때문에 양적 비교가 불가능한 이원체계를 이제 양적으로 상호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금의 노동가치 $\lambda_g = A_g\lambda + l_g$ 와 금 상품의 전형 비율 $p_g/\lambda_g = b_g$ 이 도입되고, 그 결과 $(A_g\lambda + l_g)b_g = p_g$ 식이 가격체계에 추가된다. 그러면 가격체계는 이제 미지수와 식의 수가 서로 같아져서 절대값 체계가 되며, 그 결과 가치체계와 양적으로 비교가능하게 된다. 즉, 금 상품을 도입함으로써 양적으로 비교할 수 없었던 두 체계가 비교가능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보르트키예비츠의 체계는 타당해 보이지 않는다.

첫째, 이 체계에는 노동시간과 화폐 간에 이중적인 가치관계가 존재한다. 이 점을 살펴보기 위해서 예를 들어 10시간의 금 생산부분 노동으로 금 1온스를 생산한다고 하자. 그러면 가치체계에서 포함된 모든 노동은 ‘10시간의 노동=금 1온스’라는 등식에 따라 자신의 가치를 표현한다. 그런데 금가치가 전형됨에 따라 ‘금 1온스의 가치=금 $\frac{3}{4}$ 온스 또는 $1\frac{1}{2}$ 온스의 생산가격’과 같게 된다. 그러면 가격체계에서 ‘10시간의 노동=금 $\frac{3}{4}$ 온스 또는 $1\frac{1}{2}$ 온스’라는 등식이 성립한다. 그래서 일정한 노동시간은 두 개의 상이한 양으로 이중적으로 표현된다. 한편으로 가치체계에서 10시간의 노동은 가치체계에서 금 1온스와 같은 가치로, 다른 한편 가치체계에서 금 $\frac{3}{4}$ 온스 또는 $1\frac{1}{2}$ 온스로 서로 다른 이중의 가치로 평가된다. 이렇게 보르트키예비츠가 두 체계에 서로 상이한 두 개의 가치척도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원체계의 가치총량을 양적으로 비교하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게 된다.

둘째, 보르트키예비츠의 이원체계에서 양적 비교는 전적으로 금 생산 부문에 의존하게 된다. 우선 가치체계에서 금의 노동가치 λ_g 와 총노동가치 $Q\lambda$ 및 총잉여가치 $Q\sigma$ 가 가격체계와 b_g 의 값과는 독립적으로 자체적으로 결정된다, 그리고 금 화폐의 양으로 표현된 총노동가치와 총잉여가치는 각각 $Q\lambda/\lambda_g$ 와 $Q\sigma/\lambda_g$ 의 금양으로 표현된다. 그리고 총가격 Qp 와 총이윤 $rQ(Ap + wp)$ 는 가격체계에서 b_g 의 값

과 독립적으로 결정되고, 금 가치의 전형에 따라 $p_g = \lambda_g b_g$ ($b_g \neq 1$) 인 관계가 성립한다. 그러면 금의 양으로 표현된 총가격은 $Qp/p_g = Qp/(\lambda_g b_g)$ 로, 총이윤은 $rQ(Ap + wp)/p_g = rQ(Ap + wp)/\lambda_g b_g$ 로 결정된다.

그래서 각각 금양으로 표현된 가치체계에서의 총량들은 금의 전형 비율 b_g 에 의존하지 않는 반면, 가격체계의 총량들은 b_g 에 반비례한다. 즉, b_g 가 크거나 작을수록 가격체계의 총량들은 가치체계의 총량들에 비해 과소 또는 과대평가되는데, b_g 는 다시 금 생산부문에 자본의 유기적 구성에 비례한다. 그래서 결국 금 생산부문의 유기적 구성이 높거나 낮음에 반비례하여 가격체계의 총량들은 낮거나 높아지게 된다. 즉, 두 체계에 나타나는 가치총량들의 상대적 크기와 총계일치 여부는 금 생산부문의 유기적 구성에 결정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이상한 결과가 나온다.

셋째, 전형논쟁에서 두 쌍의 총계 일치 명제 중 하나만 성립한다고 주장되어 왔다. 하지만 위의 보르트키예비츠의 경우 일반적으로 두 쌍의 총계 모두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두 쌍의 총계 일치는 $Q\lambda/\lambda_g = Qp/|\lambda_g b_g(a)|$ 와 $Q\sigma/\lambda_g = rQ(Ap + wp)/|\lambda_g b_g(b)|$ 인데, 각각은 b_g 가 특정한 값이 $b_g(a)$ 또는 $b_g(b)$ 일 때에만 성립한다. $b_g(a)$ 와 $b_g(b)$ 는 일반적으로 서로 상이할 뿐만 아니라, b_g 가 $b_g(a)$ 또는 $b_g(b)$ 가 되는 경우는 금생산부문의 유기적 구성이 ‘우연히’ 그에 상응하는 경우에 불과하다. 오히려 일반적으로는 b_g 는 $b_g(a)$ 또는 $b_g(b)$ 와는 다를 것이며, 그 결과 두 쌍의 총계들 중 한 쌍만이 일치하고 두 쌍의 총계가 동시에 일치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두 쌍의 총계 중 어느 하나도 성립하지 않는다.

나아가 보르트키예비츠는 “주어진 가치모델을 가지고”, “일정한 가격 단위를 선택”해서 “총가격과 총가치를 같게 할 수 있지만”, “총이윤을 총잉여가치와 등치시키면서 동시에 총가격을 총가치와 등치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나서 그는 ‘총가치=총가격이라는 일치’는 ‘자의적이지만 허용가능한 가정’이라고 덧붙인다(1907a; p. 245). 그는 일반적으로 두 쌍의 총계일치 명제 중 어느 것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그는 ‘자의적’으로 b_g 가 한 쌍의 총계가 성립하도록 $b_g(a)$ 또는 $b_g(b)$ 로 ‘선택’ 또는 ‘가정’하면, 한 쌍의 총계는 일치하지만 두 쌍의 총계가 동시에 일치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결국 그는 맑스의 총계일치 명제를 ‘자의적인’ 척도의 ‘선택’문제로 이해한다.

보르트키예비츠(1907a)는 금의 가치가 전형되지 않는 경우($b_g = 1$)에 대해 논의

하지 않는다. 그런데 보르트키예비츠(1907b)는 ‘자의적인’ 가정을 실제로 행한다. 그는 1) 단순 재생산을 가정하고, 2) 금 생산부문이 사치재 부문이라고 가정하며, 3) $b_g = 1$ 이라고 가정한다. 즉, $p_g = \lambda_g$ 라고 가정한다.¹⁸⁾ 그리고 그는 ‘총잉여가치=총이윤’은 성립하지만, 총노동가치=총생산가격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맑스의 가치론은 비정합적(inconsistent)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의 총계일치 명제라도 성립하게 되는 것은, 3)의 가정만이 아니라 1)과 2)의 가정이 ‘자의적으로’ 추가되어 있기 때문이다.¹⁹⁾ 만약 ‘자의적’인 1)과 2)의 가정이 없고 가정 3)만을 할 경우, 역시 두 개의 총계 모두가 성립하지 않는다.

결국 보르트키예비츠는 두 개의 상이한 가치결정 원리를 결합하고 자신의 이원체계를 구성하여, 그것이 맑스의 가치론을 표현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한편으로 인간 노동에 의해 상품의 가치가 결정되는 리카도의 가치론에 기초하여 가치체계를 구성하고, 다른 한편 스라파에 의해 더욱 체계화된 인간 노동과는 무관하게 상품들 간의 양적 관계에 의해 가격과 이윤율이 결정되는 가격체계를 구축한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상이한 두 원리에 의해 구성된 상호 분리된 두 개의 체계를 상품화폐를 도입하여 연결시키고, 두 체계의 가치총량을 비교한다.

하지만 보르트키예비츠는 화폐상품의 가치가 전형되어야 하는가의 문제에 직면한다. 그러나 그의 이원체계에서는 금의 가치가 전형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모두 맑스의 두 개의 총계 모두가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자의적인’ ‘가정’들을 ‘선택’하고, 한 쌍의 총계만이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런 자의적인 가정이 없다면, 다시 두 쌍의 총계 모두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런 문제점은 맑스의 가치론에 내재한 문제가 아니며, 단지 두 개의 상이한 원리를 결합시킨 보르트키예비츠의 이원체계 해석에서 비롯된 것이다.²⁰⁾

18) 보르트키예비츠(1907b)는 세 부문의 노동가치의 생산가격으로의 전환계수 x , y , z 를 사용하는데, 금 생산부문의 전환계수 z 를 1로 놓는다.

19) 우선 단순재생산을 가정하면 총잉여가치와 총이윤은 모두 사치재 부문에 사용되므로, 가) ‘총잉여가치=사치재 부문의 총노동가치’와 ‘총이윤=사치재 부문의 총생산가격’이 성립한다. 그리고 사치재 부문과 동일시된 금 생산부문에서 $p_g = \lambda_g$ 으로 가정하면 금 생산 부문의 유기적 구성이 사회적 평균이라고 가정하는 것이고, 그 결과 나) ‘금 생산부문의 노동가치=생산가격’이 성립하게 된다. 그러면 가)와 나)에서 ‘총잉여가치=총이윤’이 성립한다.

20) 만약 보르트키예비츠가 일반적으로 두 쌍의 총계 중 하나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면, 전형논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 경우 어느 누구도 보르트키예비츠가 맑스의 가치론을 올바르게 해석했다고 믿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2) 신리카도학파와 화폐

전형논쟁 과정에서 신리카도학파는 보르트키예비츠의 금화폐의 문제점을 피하기 위해, 직접 ‘자의적인’ ‘가정’을 선택한다.²¹⁾ 이들도 이원체계를 구성하지만, 이원체제 자체만으로는 가치들의 양적 비교를 할 수 없다. 하지만 이들도 맑스의 가치론의 비정합성을 주장하려 하는데, 그를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노동시간과 가격을 연관시켜야 한다. 하지만 그들은 보르트키예비츠와 같이 금 화폐를 가정할 수는 없는데, 그 경우 두 쌍의 총계일치 명제 모두가 성립할 수 없고, 그에 따라 맑스의 가치론을 잘못 해석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금 외의 다른 상품, 예로 n 번째 상품을 척도재로 간주하더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문제가 생겨난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p_n = \lambda_n = 1$ 일 수 없고, 총계일치는 n 번째 상품을 생산하는 부문의 유기적 구성에 좌우되며, 두 쌍의 총계 모두가 일치하지 않는다. 나아가 상품 n 이 아니라 상품 k 를 척도재로 삼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k 상품을 생산하는 부문의 자본의 유기적 구성은 상품 n 의 경우와 다를 것이다. 그러면 상품 n 을 척도재로 선택하느냐 k 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총계량의 상대적인 크기가 달라진다. 즉, 어떤 상품을 척도재로 ‘선택’하는 것은 ‘자의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신리카도학파는 일반적으로 금화폐뿐만 아니라, 어떤 상품도 척도재로 사용할 수 없다. 그렇지만 가격체계 속의 가치량은 ‘가격’으로 가정되기 때문에, 이들도 화폐에 대해 논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이들은 일반적으로 화폐를 불환지폐로 간주함으로써, 보르트키예비츠의 문제를 회피한다. 그의 문제는 p_g 와 λ_g 과 다르다는 점인데, 불환지폐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가치가 전형될 필요가 없고, 따라서 이중의 가치를 가지지 않고 가치척도가 이원화되지 않는다. 이제 불환지폐 단위의 가치를 b_p 라고 하자.

신리카도학파는 불환지폐의 가치 b_p 를 통해 보르트키예비츠의 ‘선택’을 다시 행한다. 그들은 먼저 ‘총노동가치=총가격’, 즉 $Qp = b_p(a)$ $Q\lambda$ 이 성립하도록, b_p 를 $b_p(a)$ 로 ‘자의적’으로 ‘선택’한다. 그런데 이 $b_p(a)$ 는 ‘총잉여가치=총이윤’, 즉 $rQ(A$

21) 예외적으로 Steedman은 철산업과 곡물산업, 그리고 금산업의 형태로 보르트키예비츠의 금산업 체계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1977; pp. 37-49). 단지 그는 단순 재생산을 가정하지 않는다는 점만 다를 뿐이다.

$p + wp] = b_p(b)$ $Q\sigma$ 가 성립하는 $b_p(b)$ 와는 다르다. 즉, 하나의 총계일치 명제가 성립할 수 있도록 화폐의 가치를 ‘선택’하면, 그 화폐의 가치에서 평가되는 다른 총계들은 일치하지 않는다. 반대로 $b_p(d)$ 를 ‘자의적’으로 ‘선택’하면, ‘총노동가치=총가격’이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신리카도학파는 맑스의 가치론이 비정합적이라고 주장한다.²²⁾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맑스의 주장과는 너무나 상이하다. 맑스의 경우 ‘총잉여가치=총이윤’이 성립하는 것은 이윤의 궁극적인 원천이 잉여가치이기 때문이며, ‘총가치=총가격’이 성립하는 것은 상품 가치의 원천이 인간노동이기 때문이다. 즉, 전형 과정에서 두 쌍의 총계가 성립하는 것은 가치론과 잉여가치론에 따른 필연적인 ‘논리적 귀결’이다. 그것은 신리카도학파의 경우와 같이 불환지폐의 가치를 자의적으로 ‘선택’한 결과일 수 없다.

신리카도학파의 주장은 불환지폐의 가치 b_p 가 $b_p(a)$ 이면 $b_p(b)$ 와 다르고, $b_p(b)$ 이면 $b_p(a)$ 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왜 ‘ b_p 가 $b_p(a)$ 이고’, 또는 ‘ b_p 가 $b_p(b)$ 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어떤 논리적 설명도 할 수 없다. 실제의 자본주의 현실에서 불환지폐의 가치 b_g 가 어떠한 논리에 따라 $b_p(a)$ 또는 $b_p(b)$ 와 일치할 수 있는가? 나아가 자본주의 현실에서 b_p 는 $b_p(a)$ 또는 $b_p(b)$ 모두와 일반적으로 상이할 수 있지 않는가? 이 점에 대해 신리카도학파는 답변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b_p 를 전형의 ‘논리’에 따라 필연적으로 도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의적’으로 ‘가정’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보르트키예비츠와 신리카도학파의 이론적 무능은 바로 맑스의 논리에 따르지 않는 이원체계를 구성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맑스의 논리와는 다른 두 개의 분리된 이원체계를 구성한다. 하지만 그 때문에 그들은 총계량의 양적 비교를 할 수 없게 된다. 단지 그들은 양적 비교를 통해 맑스의 가치론의 비정합성을 밝혀야 하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두 체계를 연결시키는 ‘가정’을 한다. 하지만 그들이

22) 신리카도학파가 자의적으로 총계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수학적으로 이원체계 전체의 자유도가 1이라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가치체계의 자유도는 0이고, 가격체계는 자유도가 1이다. 그래서 두 체계 전체에 그것과 선형 독립된 식 ‘하나만’을 외부적으로 추가할 수 있다. 신리카도학과 하나의 총계를 선형독립된 식으로 자의적으로 대입한다. 하지만 이원체계는 자유도가 1이기 때문에 선형 독립된 식 두 개가 동시에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두 쌍의 총계일치 명제가 동시에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된다.

주장하는 비정합성은 단지 그들의 ‘자의적인’ ‘가정’들의 결과일 뿐이다. 화폐의 가치가 하나의 값을 가지게 ‘가정’하면, 다른 값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양적 비정합성을 논의하기 이전에 다음과 같이 물어보아야 한다. 위의 가격체계에서와 같이 상품들의 양적 관계에 의한 가치결정 원리에 의해 결정되는 이윤율과 가격들은 맑스의 가치론과 양립할 수 있는가? 신리카도학파는 그렇다고 말할 것이지만, 실제로는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맑스의 가치론의 핵심은 이윤과 일반이윤율도 잉여노동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신리카도학파의 이원체계를 ‘수정’해서 맑스의 가치론에 적합한 체계를 구해야 한다.²³⁾

맑스의 일반이윤율 r 은 인간노동에 기초하여 ‘잉여가치/자본의 가치’로 구해져야 한다. 그런데 이원체계에는 자본의 가치가 $A\lambda + w\lambda$ 와 $Ap + wp$ 의 형태로 이원적으로 존재한다. 자본의 가치가 두 가지라면 일반이윤율도 두 가지이다. 그런데 자본주의 현실에서 일반이윤율은 두 가지가 아니라 하나이며, 이 이윤율이 자본의 현실적인 운동을 규제한다. 그러면 자본의 현실적인 이윤율을 규정하는 ‘현실적인’ 자본의 가치는 무엇인가? 발전한 자본주의 현실에서 노동가치 형태의 자본 $A\lambda + w\lambda$ 은 자본의 운동과 현실의 이윤율을 규정하지 못한다. 그래서 현실적인 일반이윤율은 생산가격 형태의 자본의 가치 $Ap + wp$ 에 기초하여 구해져야 한다.²⁴⁾

그리고 맑스의 가치론에 적합한 잉여가치는 무엇인가? 잉여가치는 ‘잉여노동’의 표현이고, 잉여노동은 노동의 일부이므로, 결국 노동에서 나와야 한다. 그런데 가격체계에는 노동변수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잉여가치는 가치체계에서 도출되어야 한다. 즉, 잉여가치는 $ml - wp$ 이다. 그리고 일반이윤율 r 은 $(ml - wp)Q / (Ap + wp)Q$ 이며, 여기에서 이윤율은 신리카도학파의 경우와 같이 ‘노동’과 무관하게 결정되지 않고, 잉여가치에 의해 결정된다. 바로 이것이 맑스의 이윤율이다. 나아가 우리는 가격체계에 이윤율을 도입함으로써 생산가격 p 도 식 (5)와 같이 구할 수 있다. 그러면 신리카도학파의 이원체계는 다음과 같이 단일체제로 ‘수정’된

23) 신리카도학파의 동시적 이원체계는 Bortkiewicz(1907, b)가 맑스의 비용가격 ‘수정’을 투입물과 산출물의 가치의 동시적 결정으로 ‘수정’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수정은 보르츠키에비츠의 잘못된 수정에 대한 ‘재수정’이고, 맑스의 가치론을 제자리에 다시 위치시키는 것이다.

24) $A\lambda + w\lambda$ 와 $Ap + wp$ 형태의 두 가지 자본의 가치 또는 비용가격의 관계에 대해서는 김창근(2005)의 2장을 보라.

다.

$$\text{가치체계: } \lambda = Ap + ml \quad (3)$$

$$\text{이윤율 결정: } r = (ml - wp)Q / (Ap + wp) \quad (4)$$

$$\text{가격체계: } p = (Ap + wp)(1 + r) \quad (5)$$

결국 맑스의 가치론은 신리카도학과와 같은 이원체계가 아니며, 오히려 ‘단일체계’이다.²⁵⁾ 여기에서 자본의 가치는 ‘단일한 형태’를 취하고, 잉여가치는 단지 평균 이윤으로 분배될 뿐이다. 그리고 맑스의 두 쌍의 총계는 동시에 일치한다.

2. 새 해석의 폴리와 화폐의 가치

새 해석의 폴리(Floey)는 화폐의 가치 개념을 이용해, 맑스의 전형에 대한 신리카도학과와의 비판에 대응한다. 먼저 폴리의 화폐의 가치에 대해 살펴보고, 그것의 전형이 갖는 의미를 비판적으로 고찰하자.

(1) 폴리의 화폐의 가치

폴리는 우선 상품들의 “가격들이 노동가치에 비례한다면, 화폐의 가치는..... 화폐상품의 노동가치와 같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한다(Foley, 1982:39). 즉, 전형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화폐의 가치는 화폐상품인 금의 노동가치에 의해 결정된다. 그런데 전형을 고려하면 “금 생산에 투자된 자본의 고용노동에 대한 비율이 평균으로부터 괴리될 수 있거나, 금이 독점적 조건 또는 지대를 가지고 생산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상품들의 가격에 비한 그것의 가격이 그 가치로부터 괴리된다(p. 44).”²⁶⁾ 그리고 폴리는 “금화폐의 가치는 다른 상품들의 생산가격에 비한 금의

25) 위의 체계는 비교를 위해 신리카도학과와 같이 투입물과 산출물의 가치가 동시적으로 결정되는 ‘동시적 단일체계’로 ‘시점간 단일체계 접근’과는 다르다. ‘동시적 단일체계’에 대해서는 Wolff, Roberts and Callari(1982, 1984a, b), Roberts (1987, 1997), Lee(1990, 1993) 등을 보라.

26) 폴리는 금의 가치가 노동가치로부터 괴리될 수 있는 이유로 금 생산부문의 지대를 들고 있지

생산가격에 의해 지속적으로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1986; 25)²⁷⁾ 즉, 폴리에 따르면 전형 때문에 금은 노동가치대로 다른 상품들과 교환되지 않는다. 그리고 폴리는 ‘20세기의’ 화폐는 이전의 “법정화폐와 다른데”, “달러나 파운드 또는 프랑이 더 이상 금 화폐에 대해 평가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한다(1986; 26). 즉, 금태환이 정지되면, 불환지폐의 가치 g 는 ‘총직접노동/순생산물의 가치’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폴리의 화폐 가치는 단지 ‘정의식’ 또는 논리적인 순환론일 뿐이라고 비판받아 왔다.²⁸⁾

맑스의 경우 화폐의 가치 g 는 금 생산부문에서 \bar{g} 로 결정되어, 다른 생산부문의 생산에 ‘주어져’ 있다. 그러면 그 역수인 노동시간의 화폐적 표현 m 도 \bar{m} 으로 ‘주어진다’. 다른 생산부문의 연간 직접 노동시간의 총합 Σl_i 는 이렇게 주어진 \bar{m} 에 기초하여 $\bar{m} \Sigma l_i$ 로 평가되고, 분배와 재분배를 통해 $\Sigma(v_i + \pi_i)$ 로 실현된다.²⁹⁾ 그 결과 1년간의 생산과 유통이 끝나고 나면 $\bar{g} \equiv \Sigma l_i / \Sigma(v_i + \pi_i)$ 또는 $\bar{m} \equiv \Sigma(v_i + \pi_i) / \Sigma l_i$ 라는 ‘항등관계’가 사후적으로 성립된다. 하지만 여기에서 g 는 $\Sigma l_i / \Sigma(v_i + \pi_i)$ 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금 생산부문의 생산조건에 의해 주어져 있다. 이렇게 화폐 가치 g 와 노동시간의 화폐적 표현 m 이 총계적 변수인 Σl_i 와 $\Sigma(v_i + \pi_i)$ 와는 독립적으로 금 생산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노동에 의해 생산 이전에 \bar{g} 와 \bar{m} 의 형태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맑스의 화폐론은 논리적 순환론에 빠지지 않는다.

반면 폴리의 화폐의 가치는 논리적 순환론이다. 왜냐하면 직접노동의 총량이 Σl_i

만, 금 생산부문에서 지대가 존재할 경우 금의 노동가치는 생산가격으로 전형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아래의 III절 참조.

27) 폴리가 금의 생산‘가격’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앞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이것은 잘못이다.

28) 폴리의 화폐의 가치가 ‘정의식’이라는 것은 Foley(1982)도 누차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Foley(1997)도 “새해석의 정의들은 모든 경제에서 모든 시기에 정의상 반드시 성립할 수밖에 없는 사후적 계산 항등식들이라고 시인한다(284). 폴리의 화폐의 가치가 갖는 논리적 순환론에 대해서는 Germer(1997)와 강성윤(2001, 37-41)을 보라.

29) 여기에서 l_i 는 신리카도학파의 단위 상품에 지출된 노동이 아니라, 1년간 i 부문에서 지출된 노동이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고정자본은 없고 모든 자본의 연간 회전기간은 1년이라고 하자. c_i , v_i 와 s_i , π_i 는 각각 I부문에서 연간 사용한 불변자본, 가변자본, 그리고 연간 잉여가치와 이윤이다.

일 때, 화폐의 가치 g 는 $\Sigma(v_i + \pi_i)$ 가 먼저 결정되어야 알 수 있고, 또한 $\Sigma(v_i + \pi_i)$ 의 값은 g 가 먼저 결정되어야 결정될 수 있다. 두개의 가치 중 하나를 우선 결정할 수 있다면 논리적 순환론에 빠지지 않지만, 폴리의 경우 그럴 수가 없다. 물론 두 개의 가치가 ‘동시적’으로 결정되거나 또는 1년간의 유통 후에 ‘사후적’으로 결정될 수는 있다. 하지만 g 가 미리 결정되지 못하면 상품들이 가격을 가지고 가지 않고 유통에 들어가거나 또는 화폐의 가치는 단지 ‘사후적 항등식’일 뿐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결국 폴리의 어려움은 그가 상품화폐의 가치결정을 포기했기 때문인데, 그 결과 화폐의 가치를 상품들의 가격결정과 독립해서 그리고 그것에 논리적으로 선행해서 결정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논리적 순환론이었다.³⁰⁾

(2) 폴리의 화폐 가치와 전형

전형에 대한 논의에서 폴리도 신리카도학파의 동시적 이원체제에서 출발하고 있는데, 차이점은 폴리가 화폐의 가치 g 를 ‘총 직접노동/순생산물의 가치($Ql/Q[p - pA]$)’로 정의한다는 점이다. 즉, $g \equiv Ql/Q[p - pA]$ 이다. 또한 신리카도학파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실물임금 w_i 로 정의하기 때문에, 임금이 노동가치 $w_i\lambda$ 와 생산가격 $w_i p$ 형태로 이원적으로 나타난다. 반면 폴리는 노동자들이 임금을 화폐로 받는다는 점을 들어, 임금이 화폐임금 w_i^m 로 단일하게 나타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폴리는 한편으로 맑스의 ‘총가치=총생산가격’은 순생산물에 대해 타당하다고 주장하는데, 자신의 화폐 가치에 대한 ‘정의’에 따라 ‘순생산물의 가치=총 직접노동’, 즉 $gQ[p - pA] \equiv Ql$ 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그는 총임금 Qw^m 이 단일한 화폐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총잉여가치=총이윤’, 즉 $Ql - gQw^m = gQ[p - pA - w^m]$ 가 성립한다고 주장한다.³¹⁾ 그런데 폴리는 이렇게 맑스의 가변자본 부분을 ‘단일한’ 형태의 가치로 간주하면서도, 불변자본의 가치도 단일한 형태의

30) 폴리는 g 가 역사적으로 “생산자가 평균적으로 상품들에게 부여해서 물려받은 상품가격 수준과, 자본들의 가격책정 전략에 의해서 유도되는 평균적인 가격변화”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한다(Foley, 1986; 26) 이런 주장은 논리적 순환론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역사적으로 물려받은 상품가격 수준’이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결정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31) 폴리가 화폐임금을 주장한 것은 신리카도학파의 비판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지만, 맑스의 임금이론을 부정하는 것이다. 맑스에 따르면, 노동자들은 임금을 화폐로 지불받지만 화폐임금은 노동자들의 생활수단의 가치에 의해 결정된다. 폴리의 화폐임금은 임금의 화폐형태를 강조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노동력의 가치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는 설명하지 못한다.

가치를 가진다는 ‘단일체계 해석’에는 반대한다.

폴리의 주장은 신리카도학과보다는 더욱 진전된 것인데, 적어도 후자와 같이 ‘자의적인 가정’이 아니라 일정한 ‘논리’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한편으로 사후적인 ‘정의식’이지만 화폐의 가치에 대한 일정한 논리에 기초하고 있고, 다른 한편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에 일정한 화폐액이라는 엄연한 현상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하지만 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폴리가 화폐의 가치를 총계일치 명제와 연관시키는 것은 옳바르지 않다. 전형은 일반이윤율 r 이 자본들 간의 경쟁 때문에 형성되고, 그 결과 일정한 형태 $c_i + v_i$ 로 주어진 자본들이 생산한 잉여가치 s_i 가 평균이윤 π_i 으로 자본들 간에 재분배되는 것이다.³²⁾ 전형과정에서 총계일치 명제가 성립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총 잉여가치 Σs_i 가 총이윤 $\Sigma \pi_i$ 로 ‘재분배’되기 때문에 양자는 일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본의 가치는 생산 이전에 이미 $c_i + v_i$ 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총 가치 $\Sigma(c_i + v_i + s_i)$ 는 필연적으로 총가격 $\Sigma(c_i + v_i + \pi_i)$ 과 일치한다.

맑스의 총계일치는 폴리와 같이 화폐의 가치와 임금 형태에 대한 ‘정의’에 따라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화폐의 가치는 전형과정에서 주어져 있지만 하면 된다. 노동시간의 화폐적 표현이 \bar{m} 로 주어져 있다면 직접노동 l_i 는 $\bar{m}l_i$ 로 표현될 수 있고, $\bar{m}l_i - v_i$ 가 잉여가치 s_i 가 된다. 그리고 잉여가치가 자본들 간에 π_i 로 재분배된다. 그 결과 사후적 항등식으로 $\bar{g} \equiv \Sigma l_i / \Sigma(v_i + \pi_i) = 1/\bar{m}$ 가 성립한다. 그래서 총계일치 명제가 성립하는 것은 전형이 가치의 재분배일 뿐이기 때문이며, 총계일치 명제가 성립하기 때문에 화폐 가치의 항등식이 성립한다. 폴리가 주장하는 것 같이 화폐 가치의 항등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총계량들이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

둘째, 폴리가 화폐 가치에 대한 정의에서 불변자본의 가치를 제외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의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로이든지 화폐 가치 g 가 \bar{g} 로 미리 주어져 있다고 가정해야 한다. 그리고 그럴 경우에만 화폐형태로 노동자들에게 지불되는 가변자본 v_i 에 기초하여, 잉여가치 $s_i = l_i / \bar{g} - v_i$ 와 평균이

32) 여기에서 자본의 가치는 노동가치로 구입한 생산수단과 노동자들의 생활수단의 가치의 합일 수도 있고, 생산가격으로 구입한 그것들의 가치일 수도 있다. 현실적으로 그것들은 노동가치 또는 생산가격으로 구입되지 않고, 시장가격으로 구입될 것이다. 그렇지만 세 경우 모두 전형의 일반적 원칙은 잉여가치의 재분배라는 점이다.

운 π_i 가 결정될 수 있다. 그럴 경우에만 상품들은 $c_i + v_i + \pi_i$ 형태의 가격을 가지고 유통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폴리는 불변자본의 가치 c_i 도 생산 이전에 이미 ‘구매가격’이라는 일정한 화폐의 양으로 주어져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듯하다. g 와 생산조건이 변하지 않는다면, 주어진 c_i 는 생산물의 가치에 그대로 포함된다. 그래서 화폐의 가치와 관련해서, 직접노동 부분과 가변자본, 그리고 불변자본의 가치는 상이하지 않다. 양자 모두 화폐 가치가 먼저 주어진다면, 동일한 방식으로 생산물의 가치에 포함된다.

셋째, 폴리가 자신의 해석에 기초하여 단일체계 해석을 거부하는 것은 무의미해 보인다. 그는 분명히 자본주의 현실에서 자본의 가치는 생산가격으로 ‘구입’한 pQ 의 형태이고, 현실적으로 자본가들의 운동을 결정하는 것도 생산가격 형태의 이윤율 $r = [Qp - QAp - Qw^m l] / [QAp + Qw^m l]$ 이라는 것을 인정할 것이다. 그러면 폴리의 이윤율은 사실상 동시적 단일체계 해석의 것과 동일한데, 단지 폴리의 경우 임금이 w^m 로 노동자들의 실물임금과 무관하게 일정한 화폐액으로 결정되고 있다는 점만이 다르다. 그리고 이 결과는 폴리와 단일체계에서 모두에서 $A \lambda Q$ 라는 노동가치 형태의 불변자본의 가치가 이윤율을 결정하는 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폴리가 단일체계 해석을 부인하는데, 그것은 그가 아직도 이원체계 해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노동가치 형태의 자본의 가치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폴리(1997)는 “새 해석이 정의한 노동의 화폐적 표현의 용법을 확장하여 불변자본과 투자자본 스톡의 화폐 측정치들을 노동시간 등가 척도들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 말함으로써, 불변자본 부분을 생산가격 형태로 단일하게 간주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Foley, 1997; p. 279).³³⁾ 그러나 그는 뒤메닐(Duménil)의 가치의 중복계산 문제와 불변자본의 가치변화에 기초하여 새 해석을 정당화하려 한다. 그는 총가치 계산에는 “1년간의 총산출 가치는 불변자본의 일부를 두 번 이상 계산한 것일 수 있고”, 불변자본의 가치가 변하면 ‘순생산물의 가치’는 “[자본]스톡 가치의 변화+소비의 가치와 반드시 같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285, 290-1). 물론 총가치 계

33) 폴리가 맑스의 전형을 화폐가치의 정의를 확장하는 문제로 이해하는 것도 잘못이다. 전형은 주어진 기존가치에 근거하여 새롭게 생산된 가치가 자본과 노동 사이에 분배되고, 나아가 자본들 간에 경쟁에 의해 재분배되는 문제이다.

산에 가치의 이중계산이 일어난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맑스의 총가치와 총생산가격 개념이 수정될 필요는 없다.³⁴⁾ 그리고 불변자본의 가치 c_i 가 Δc_i 만큼 변하더라도, Δc_i 를 총가치 $\Sigma[(c_i + \Delta c_i) + ml_i]$ 와 총생산가격 $\Sigma[(c_i + \Delta c_i) + v_i \pi_i]$ 에 동일하게 포함시키면 아무런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³⁵⁾

3. 시점간 단일체계 접근의 화폐의 가치

시점간 단일체계 해석의 화폐에 대한 논의는 폴리와 유사한데, 그들은 첫째 화폐상품의 가치가 다른 상품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형된다고 주장하고, 둘째, 폴리의 화폐 가치의 역수인 노동시간의 화폐적 표현을 사용한다. 차이점은 이들이 첫째, 노동시간의 화폐적 표현에 불변자본의 가치를 포함시키고 있고, 둘째 이 표현의 결정에 시점적(temporal) 성격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즉, t 의 시점에 $m(t)$ 가 주어지고, 이 $m(t)$ 에 기초하여 t 에서 $t+1$ 까지의 노동 l_i 이 $ml_i(t+1)$ 의 가치로 실현된다.

로드리게즈-헤레라는 금의 노동가치와 노동시간의 화폐적 표현을 각각 ‘특수한 사용가치로서의 금의 가치’와 ‘보편적 가치형태로서 대표하는(represent) 가치’로 구분하고, 둘은 서로 다르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금의 노동가치는 금의 ‘특수한 생산조건’에 의존하는 반면, 금의 가격은 “금생산자로 하여금 평균이윤을 획득하게 해주는 교환관계”이고, “특수한 사용가치로서의 금에 포함된 가치는 그것이 보편적 가치형태로서 대표하는 가치와 다르기” 때문이다. 즉, 금의 가치가 전형된다는 것인데, 그는 그 이유에 대해 “보편적 등가로서의 화폐가 대표하는 가치는 그 사회적인 특수한 기능으로부터 나오며..... 그 특수한 생산조건에 의존하지 않는다”라고 말한다(Rodriguez-Herrera, 1996; 85, 86). 클리만은 화폐상품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 없이 ‘노동시간의 화폐적 표현’을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 한 단위가 대표하는 화폐단위의 양’으로 정의한다(Kliman, 1996; 215). 또한 프리만에 따르면 화폐의

34)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창근(2005)의 3.4를 참조하라.

35) 폴리(1997)의 주장은 클리만(Kliman, 1996)에 대한 대응인데, 클리만의 숫자 예는 불변자본의 가치 변화를 총가치와 총생산가격 양자에 포함시키지 않고, 총생산가격에만 포함시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클리만의 실수가 폴리의 주장을 정당화시키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가치는 “화폐상품에 체화된 가치라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의미의 화폐의 가치”가 아니며, “사회의 노동에 대한 화폐의 구매력”을 의미한다(Freeman, 1997: 8).

이렇게 시점간 단일체계 접근은 대부분 화폐상품의 전형 문제와 불환지폐의 등장 때문에, 맑스의 경우와 같이 화폐상품에서 출발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불환지폐에서 출발하여 노동시간의 화폐적 표현을 통해 불환지폐의 가치를 논의한다. 그런데 네이플즈는 “금 생산자는 토지의 절대지대를 획득”하지만, “금은 가치보다는 생산가격에 의해 교환된다”고 말한다(Naples, 1996: 106). 이런 언급은 중요한데, 우리는 다음 절에서 금광지대 때문에 상품화폐의 가치는 전형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것이다. 하지만 네이플즈는 지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금이 생산가격에 따라 다른 상품들과 교환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금 화폐가 상품이라는 점에만 너무 집착한 결과인 듯하다.

결국 시점간 단일체계 접근은 화폐의 가치결정 문제에 있어 두 가지 접근방법을 취하고 있는데, 한편으로 화폐상품을 고려할 경우에는 화폐의 가치가 전형된다고 간주하거나, 다른 한편 화폐를 불환지폐라고 전제한 이후 맑스의 ‘노동시간의 화폐적 표현’을 사용한다. 우선 금의 가치가 전형되는 경우의 문제점을 살펴보자.

먼저 금의 가치가 전형되지 않는 경우, 금 생산 양을 G 라고 한다면, $G = c_G + ml_G = c_G + v_G + s_G$ 가 성립하고, $m = (G - c_G)/l_G$, 즉 ‘직접 노동이 새롭게 창조한 금의 양 $(G - c_G)$ ’과 ‘직접노동 (l_G) ’간의 비율로 결정된다.³⁶⁾ 이 경우 화폐의 가치는 금생산부문의 불변자본 c_G 를 제외하면, 금 생산 부문의 직접노동에 의해 결정된다. 그래서 그것은 일반이윤율 r 이나 또는 일반적인 임금수준, 그래서 v_G 와도 독립적으로 결정된다. 즉, 화폐의 가치는 가치의 분배 또는 전형(재분배)과 독립적으로 결정된다. 그런데 화폐의 가치가 소위 ‘전형’된다고 하면, 화폐의 가치는 $G = c_G + ml_G$ 의 관계가 아니라 $G = c_G + v_G + \pi_G$ 의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고 $\pi_G = r(c_G + v_G)$ 이고, $r = \Sigma(m l_i - v_i) / \Sigma(c_i + v_i)$ 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36) 이 절에서는 문제를 단순화하기 위해서 맑스가 『자본론』 3권에서 전형을 논의하면서 스스로 제기했던 생산수단과 노동자들의 생계수단의 가치의 ‘수정’ 또는 신리카도학파의 소위 ‘투입물의 전형’은 고려하지 않는다. 다음 절에서 고찰하듯이 금생산부문의 불변자본 c_G 와 가변자본 v_G 도 일정한 ‘수정’을 겪게 된다. 이러한 ‘수정’이 가지는 이론적 의미에 대해서는 김창근(2005) 2장을 참조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식을 구할 수 있다.

$$\begin{aligned} G &= c_G + v_G + \pi_G = c_G + v_G + r(c_G + v_G) \\ &= c_G + v_G + [\Sigma(m l_i - v_i)][(c_G + v_G) / \Sigma(c_i + v_i)] \end{aligned} \quad (6)^{37)}$$

여기에서 m 은 화폐상품이 전형되지 않았을 경우에 비하여 매우 복잡하게 결정된다. 이제 m 은 1) 금 생산부문의 생산조건 $[G - c_G]$ 와 l_G 에 의해 직접적으로 결정되지 않고, 2) 화폐상품의 가치는 ‘노동가치’와는 상이한 ‘생산가격’을 가진다. 그리고 화폐 상품의 가치는 3) 한편으로 일반이윤율 r , 4) 다른 한편으로 임금부분인 (v_i) 와 따라서 v_G 에 직접 영향을 받게 된다.

먼저 1)의 결과 화폐상품의 가치는 금 생산부문에서 결정할 수 없고, 다른 생산부문의 가치결정에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화폐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π_G 를 알아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다시 r 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r 을 알기 위해서는 또 다시 $\Sigma m l_i$ 을 알아야 하며, $\Sigma m l_i$ 를 알기 위해서는 또한 m 을 알아야 한다. 즉, 화폐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일반이윤율을 알아야 하는데, 일반이윤율을 구하기 위해서는 다시 화폐의 가치를 알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또 하나의 ‘논리적 순환론’인데, 이러한 순환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일반적 이윤율과 화폐의 가치가 ‘동시적’으로 결정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점간’ 단일체제 접근의 경우에도 화폐상품이 전형된다고 가정할 경우 화폐의 가치는 ‘동시적’ 가치결정으로 환원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2)의 결과 체계적인 양적 불일치가 생겨난다. 여기에서 문제는 m 이 더 이상 금 생산부문의 직간접적인 노동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게다가 그것이 평균이윤율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금생산 부문의 유기적 구성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l_G 는 금생산부문의 유기적구성이 높거나 또는 낮을수록 그에 비례하여 더 크거나 작은 $v_G + \pi_G$ 로 평가되고, 그 결과 $\Sigma m l_i$ 는 그에 반비례하여 더 작거나 큰 금량으로 표현된다. 따라서 ‘총가치’ 또는 ‘총생산가격’은 결정적으로 금생산부문의 유기적구성에 의존하게 된다. 그 이유는 화폐의 가치가 전형된다고 가정함으로써, 화폐

37) 앞서와는 달리 여기에서 i 에는 금생산부문인 G 부문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의 가치와 금생산 노동이 서로 단절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단절 때문에 상품 가치의 ‘외재적 척도’인 화폐는 더 이상 그 ‘내재적 척도’인 노동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부정확한’ 척도가 되었고, 그 결과 ‘총가치’ 또는 ‘총생산가격’은 이러한 ‘부적절한 척도’ 때문에 과대 또는 과소 평가된다.

게다가 3)과 4)에서 화폐상품의 가치는 분배와 재분배가 독립적으로 결정되지 못하고, 그것에 의해 체계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 즉, 그것은 한편으로 사회 전체에서의 가치 $\sum m l_i$ 의 임금과 이윤($\sum v_i$ 와 $\sum s_i$)으로의 분배와 이윤의 자본간 재분배(r)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특히 일반적인 임금이 상승하게 되면, 금생산 부문의 유기적구성에 따라 화폐의 가치와 m 이 변하고, 그에 따라 다른 생산조건이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금량으로 표시된 ‘총가치’ 또는 ‘총생산가격’이 체계적으로 변화하게 된다. 이러한 점은 맑스의 가치론의 기본 명제들에서 상당히 벗어나는 것인데, 맑스의 가치론의 기본명제 중 하나는 상품의 총가치는 (재)분배 조건에 의해서 변해서는 안되며, 그것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³⁸⁾

그리고 화폐상품을 전제하지 않고 화폐를 불환지폐로 가정하는 경우에도 문제점이 있다. 앞에서 우리는 폴리의 ‘화폐의 가치’는 ‘논리적 순환론’에 빠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시점간 단일체제 접근은 ‘불변자본’부분을 추가로 고려하고 ‘시점적 성격’을 감안하기 때문에, ‘논리적 순환론’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이 경우 $m(t)$ 는 $m(t-1)$ 에 기초하여 결정되고, $m(t-1)$ 은 다시 $m(t-2)$ 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식으로 ‘무한히 과거로 회귀’해야 할 수 있다. 이러한 결정이 무한한 회귀가 아니기 위해서는, 더 이상 과거로 회귀하지 않는 이론적 출발점이 필요하다. III절에서는 그러한 출발점이 화폐상품의 가치라고 주장한다.

III. 화폐상품의 가치결정

맑스는 『자본』 3권 2편의 전형에 대한 논의 전까지 화폐의 가치는 ‘주어져’ 있다고 가정하는데, 전형에 대한 논의에서도 화폐상품의 가치가 전형되는가에 대해서는 자세히 논의하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는 다행히도 『자본론』 2권의 잉여가치 회전에

38) 이와 관련된 맑스의 논의는 다음 절에서 다룬다.

대한 논의와 『잉여가치 학설사』 3권에서 이 문제에 대한 맑스의 생각을 발견할 수 있다.

1. 임금과 물가수준에 대한 맑스의 논의

맑스는 『자본론』 2권에서 잉여가치 회전을 논하면서, 임금변화와 필요화폐량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노동일의 길이, 강도 및 생산성은 불변이나.....임금이 일반적으로 상승하고.....잉여가치율이 전반적으로 저하하며.....유통하는 **상품량의 가치**에는 아무런 변동도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고찰하여 보자. 상품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화폐량의 총액은, 이 상품가치 자체가 영향을 받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경우.....상품의 **비용가격**은 개별 자본가에게 있어서는 증가되지만 상품의 사회적 생산가격은 여전히 불변이다. 변동하는 것은 불변자본을 도외시킨다면, 상품의 **생산가격**이 임금과 **이윤**으로 나누어지는 비율이다(『자본론』 2권, pp. 404-5, 강조는 필자의 것임).

우선 흥미로운 점은 여기에서 맑스가 비용가격과 생산가격, 그리고 이윤 등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인데, 이런 개념들은 『자본론』 3권에서의 전형에 대한 논의 이전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맑스가 전형 이후에서 위의 논의가 타당하다고 생각한 것으로 유추해 볼 수도 있다. 맑스에 따르면, 임금이 변동할 때 1) 총생산가격은 변하지 않고, 2) 그에 따라 필요한 화폐유통량도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는 전형에 대한 논의 이후에 『자본론』 3권 11장 ‘임금의 일반적 변동이 생산가격에 미치는 영향’에서 나타나는 논의와도 일치한다. 임금이 상승할 때 “모든 자본의 생산물들의 생산가격의 총액도 불변이고, 총자본에 의해 생산된 가치총액과 동등하다(『자본론』, 3권; 236).”

그런데 위와 같이 임금이 변할 때 화폐의 가치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화폐상품인 금의 가치가 전형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만약 금의 가치가 전형된다면, 금 생산부문이 일반이윤율 형성에 참여하게 되고, 그 결과 금 생산부문의 유기적 구성이 우연히 사회적 평균과 같지 않다면, 금의 가치도 임금 또는 일반이윤율에 의해 변동하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금의 가치가 변화함에 따라 일반적 물가수준이 하락하

거나 또는 상승하며, 또한 유통에 필요한 화폐량도 하락하거나 증가한다. 그래서 앞의 인용문에서 맑스는 상품화폐의 가치가 전형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그에 따라 임금변동과 이윤율이 변동할 때 총가치와 총생산가격이 변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즉, 맑스는 금의 가치는 전형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 우리는 금도 상품이기에 때문에 그 가치는 전형되어야 하지 않은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 이 문제에 대해 살펴보자.

2. 금의 가치와 광산지대

맑스는 『자본론』 3권에서 전형을 다루면서 전형에 따라 금의 가치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고 있지 않다. 그런데 우리는 『잉여가치 학설서』 3권의 절대지대에 대한 논의에서 다음과 같은 맑스의 논의를 발견할 수 있다.

절대지대와 관련하여, 금광을 예로 들자. 고용된 자본이 100파운드 스텔링, 평균이윤이 10파운드 스텔링, 지대가 10파운드 스텔링이[다].....50파운드 어치의 생산물부분은 [50파운드의] 불변자본을 대체한다.....12시간의 노동일을 가정하고.....50명의 노동자의 노동은 70파운드어치의 금속에 표현되는데, 그 중 50파운드는 임금을 지불하는 데 들어가고, 20파운드는 불불노동을 표현한다.....그러면 생산물은 50c와70으로 구성되고, [70]은 1노동일, 즉 $50v+20s$ 에 상응한다.....그러나 모든 보통의 산업자본들은 그 생산물의 가치가 이런 상황에서 120에 달하지만, 그것들을 110이라는 그것들의 생산가격에 판매할 뿐이다. 그러나 금광의 경우에 토지소유를 제외하고도 이것이 불가능한데, 왜냐하면 이 경우에 가치가 생산물 속에 현물로 표현되기 때문이다. 10파운드의 지대는 따라서 필연적으로 생겨난다(『잉여가치 학설서』, 3권, 403-4, 강조는 맑스의 것임).

맑스의 예에서 금 생산조건은 다음과 같다. 금생산량은 120, 금 생산 부분의 자본의 구성은 $50c_g+50v_g$ 이고, 잉여가치율은 40%, 평균이윤율은 10%이다. 그러면 금의 가치는 $C_g=50c_g+50v_g+20s_g=120$ 이다. 맑스에 따르면, 이런 금 생산 부분과 동일한 유기적 구성을 가진 ‘보통의 산업’의 생산물은 그 가치가 120임에도 불구하고, 그 생산가격인 $C_j^{tr}=(1+r)(50c_g+50v_g)=110$ 로 판매된다. 그런데 그는 금 생산 부분의 경우 사정이 다르다고 말한다.

맑스가 금의 가치가 전형될 수 없다고 말하는 이유는 1) 광산지대의 존재와 2) 금 상품의 특수성이다. 먼저 광산도 농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토지소유자들이 소유하고 있고, 광산 자본가는 그런 소유자들에게 지대를 지불해야 한다. 맑스의 농산물 지대는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사회적 평균보다 낮은 농업부문의 생산물인, 농산물의 가치와 생산가격의 차이이다.³⁹⁾ 이러한 농업지대는 그대로 광산지대에도 적용된다.

먼저 금 생산 부문의 자본의 유기적 구성은 사회적 평균보다 낮고, 생산된 금의 양은 120이지만 이 부문의 자본가들에게 평균이윤율 10%를 보장해 주는 생산가격은 110이다. 금 생산 부문의 자본가들은 생산한 금 120 중 10을 ‘현물’로 광산 지주에게 지불한다. 그리고 이 자본가에게 남은 110의 금은 소비된 자본 $50c_g + 50 = 100$ 을 대체한다. 그러면 그에게 10만큼의 금이 이윤으로 남고, 그의 일반이윤율은 10%가 된다. 이제 120의 금은 생산가격이 110인 상품과 교환되지 않고, 120의 생산가격을 가진 상품들과 교환된다. 즉, 금은 전형 이후에도 자신의 생산가격보다 높은 자신의 가치대로 계속 다른 상품들과 교환되고, 따라서 금의 가치는 지대 때문에 전형되지 않는다.

그런데 맑스는 금의 가치가 전형될 수 없는 두 번째 이유로 그것이 “생산물 속에 현물로 표현”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먼저 자본순환의 일반적 공식이 $M-C \dots P \dots C'-M'$ 인 것을 상기해 볼 수 있는데, 맑스의 전형은 생산된 상품들이 그 가치와 다른 가격으로 판매되는 것으로, $C'-M'$ 과정에서 일어난다. 금 이외의 다른 상품의 경우 실제로 120의 가치로 생산된 생산물 C' (120)이 110의 M' 과 교환된다. 반면 금 생산부문의 자본순환은 $M-C \dots P \dots -M'$ 이다. 즉, 생산물 자체가 M' (120)이다. 형태상으로 볼 때, $C'-M'$ 과정에서 나타나는 전형이 금 상품의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 게다가 120의 금은 다른 상품들과 같이 110의 금에 판매될 수 없고, 금과 교환된다면 단지 금 120과 교환될 수 있을 뿐이다.

우리의 논의는 앞 절에서의 논의와 관련해서 중요하다. 보르트키예비츠의 경우와

39) 여기에서는 맑스의 절대지대와 차액지대를 구분하지 않는다. 절대지대는 가장 열등한 토지에서 생산된 생산물에서 지불되는 지대인 반면, 차액지대는 절대지대를 넘어서서 더 우등한 토지에서 생산된 생산물에서 지불되는 지대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농업과 금 생산부문 전체를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지대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 여기에서 지대는 절대지대와 차액지대 모두를 포함한 지대로, 생산가격을 초과하는 상품의 가치이다.

는 달리 첫째, 금 화폐는 일반이윤율 형성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전형되는 n 개의 상품들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점은 전형과정에서 제외되는 농업부문과 마찬가지로이다. 둘째, 전형 이후에 금의 가치는 이중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전형되지 않은 가치로 단일하게 존재한다. 그리고 이런 가치에 따라, 금은 다른 상품들과 교환된다. 셋째, 폴리와 시점간 단일체계 해석에서와는 달리, 금의 가치는 전형되지 않는다.⁴⁰⁾

그리고 우리의 경우 맑스와 마찬가지로 임금과 일반이윤율이 변할 때 금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임금이 상승하면 일반적인 물가가 상승하지 않고, 변하는 것은 오직 이윤이 감소한다는 것뿐이다. 금의 가치는 $C_g = c_g + v_g + s_g$ 의 형태로 결정되는데, 임금 v_g 가 상승 또는 하락하더라도 동일한 만큼 s_g 가 감소 또는 하락할 뿐이고, 금의 가치 C_g 는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일반이윤율이 변하는 경우 지대와 금 생산부문의 자본가의 이윤율은 변하지만, 금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맑스의 예에서 다른 조건이 불변인데 일반이윤율이 15%로 상승하면, $50c_g + 50v_g$ 의 자본의 평균이윤은 10에서 15로 상승한다. 그 결과 광산지주의 지대는 10에서 5로 하락한다. 그렇지만 생산된 120의 금은 여전히 120의 생산가격을 가진 상품과 교환된다.

나아가 우리의 해석에 따르면, 금의 가치는 금 생산부문에서 여전히 결정된다. 위의 맑스의 예에서, 하루에 ‘12시간’ 노동하는 ‘50명’이 일주일에 120의 금을 생산한다면, 이 노동자들의 전체 노동시간은 600×7 시간이다. 그리고 생산된 금 120 중에 50은 불변자본 $50c_g$ 을 보전하기 때문에, 600×7 시간의 노동은 70의 금으로 표현된다. 그래서 1노동시간은 $1/60$ 의 금으로 표현되고, 금 1단위의 가치는 60노동시간에 의해 결정된다. 그 결과 상품들의 가격은 이렇게 결정된 금의 가치에 기초하여 결정되며, 가격을 가지고 유통에 들어간다. 결국 맑스의 화폐론은 전형 이후에도 순환론에 빠지지 않는다.

물론 다른 상품들의 가치가 전형되면, 금 생산부문에서 사용하는 생산수단과 이 부문의 노동자들의 생활수단도 생산가격에 따라 구매된다. 그래서 이 부문의 자본

40) 마투모토는 명확히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금 가치는 한계적인 금광에서의 개별가치”라고 말하면서, 금의 가치가 전형되지 않는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는 듯하다(Matumoto, 2003: 39). 그런데 그가 ‘절대지대’가 존재하는 맑스의 지대론 대신에 리카도의 지대론을 따라 가장 열등한 광산에서 생산된 금의 개별가치에 의해 금의 가치가 결정된다고 간주한 것은 이상해 보인다.

의 가치와 비용가격도 $c_g + v_g$ 의 형태에서 $c_g^* + v_g^*$ 의 형태로 ‘수정’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금 순산출량 $G - c_g^*$ 는 일정기간의 금 생산 노동 l_g 의 결과이고, 금의 가치는 $l_g / [G - c_g^*]$, 노동시간의 화폐적 표현은 $[G - c_g^*] / l_g$ 로 결정된다. 그래서 비용가격이 수정된 이후에도 여전히 금의 가치는 금 생산에 지출된 직간접적인 노동량에 의해 결정되고, 그 결과 맑스의 가치론은 순환론에 빠지지 않는다.

IV. 결 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최근의 전형에 대한 논의에서는 대부분 화폐상품의 가치가 전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또는 처음부터 화폐를 불환지폐로 간주한다.

이렇게 화폐상품의 가치를 화폐상품의 가치가 전형된다면 가정하면, 보르트키에비츠의 경우처럼 가치의 외적척도가 이중적으로 존재되거나, 폴리의 이론이나 또는 시점간 단일체제 접근에서와 같이 ‘논리적 순환론’에 빠지거나 또는 화폐상품의 가치가 전체 생산부문들에서 결정되는 임금 수준과 일반 이윤율에 영향을 받게 된다. 결국 화폐상품의 가치가 전형된다고 가정하면, 금 생산부문에서의 직접노동과 화폐와의 연관성을 잃게 되고, 맑스의 화폐론은 노동가치론에 기초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우리는 전형 이후에도 직접적인 노동시간과 화폐상품 간의 양적 관계를 확립할 수 있게 된다. 화폐상품의 가치는 다른 상품들의 가치와는 달리 전형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점은 맑스의 가치론에 기초한 화폐의 가치 연구들에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적어도 1970년대 초반 이후 미행정부가 금 대환을 정지한 이후에는 금이 화폐로서 더 이상 기능하지 않고, 불환지폐만이 화폐로서 기능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우리의 화폐상품에 대한 논의는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래서 맑스주의 경제학자들은 불환지폐의 가치를 논의하면서, 상품화폐에서 논의를 시작하지 않고 처음부터 불환지폐에 대한 논의에서부터 출발한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폴리의 경우와 같이 ‘논리적 순환론’에 빠지거나 또는 시점간 단일체제 접근에서와 같이 무한한 과거 회귀로 빠질 수밖에 없었다. 상품화폐가 공식적으로 화폐로 기능하지 않는 상황에서, ‘논리적 순환론’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또한 무한한 과거 회귀로 빠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상품화폐의 가치에 기초하면서

도, 그 가치에 기초하여 불환지폐의 가치를 설명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불환지폐는 금과 은과 같은 상품화폐에 기초하여 유통되었는데, 금본위제 하에서는 불환지폐는 법률에 의해 정해진 비율로 금은과 대환되었다. 즉, 그 가치는 금의 가치에 기초하여 결정되었다. 그 이후에 전쟁과 공황 등으로 인해 금대환 중지가 종종 있었고, 이후에 1944년의 브레튼우즈 체제에서는 미국의 달러를 제외한 다른 모든 화폐의 금과의 대환이 중지되었으며, 미국의 경우에도 자국민에게는 대환을 허용하지 않고 단지 외국의 중앙은행이 보유한 화폐의 금으로의 대환만을 인정했다. 그리고 1971년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달러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달러의 금대환 마저 중지시킴으로써, 더 이상 어떤 지폐도 금과의 대환이 가능하지 않게 되었다.

앞으로의 맑스주의 화폐론은 1) 금본위제하의 화폐상품, 2) 금대환 중지 과정에서 상품화폐와 (불환)지폐, 3) 불환지폐 등의 순으로 전개된 화폐의 역사적 발전과정에서의 화폐의 가치결정을 통합하려는 시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논의는 우선 화폐상품의 가치결정을 다루었는데, 이후의 연구과정에서는 한편으로 금이 폐화되는 과정에서의 금의 가치와 화폐가치의 관계를 고찰해야 하고, 다른 한편 금 화폐의 가치결정과는 다른 불환지폐의 가치결정 원리들을 포함시켜서 더욱 풍부한 화폐론을 정립해야 한다.⁴¹⁾ 그런 점에서 이 글은 전형논쟁에서 암묵적으로 상실되어 버렸던 화폐상품의 가치결정을 새롭게 제기함으로써, 현대 맑스주의 화폐론을 정립하는 작업의 출발점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참 고 문 헌

1. 강성운, 「불환지폐의 가치결정 원리에 대한 비판적 고찰」,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0.
2. 김창근, 「맑스의 가치론과 시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5a.

41) 역사적으로 화폐상품의 가치결정에 기초하여 불환지폐의 가치결정을 해명하려는 시도로는 김창근(2005a)의 4장을 참조할 수 있다.

3. _____, 「시점간 단일체계 접근과 새로운 가치논쟁에 대한 평가」, 『마르크스주의 연구』, 2:1,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05b.
4. 이채연, 「맑스의 가치이론으로 본 금화폐와 불환지폐의 원리적 유사성」, 『사회경제 평론』, 18 호, 2002, pp.171-216.
5. 홍 훈, 『마르크스와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제사상』, 아카넷, 2000.
6. Bortkiewicz, L., "Value and Price in the Marxian System," Translated by J. Kahane, 1952, in International Economic Papers, no.2, pp5-60, Reprinted in Marchionatti, R. (ed), (1998), Vol, III, 1907a, pp.238-99.
7. _____, "On the Correction of Marx's Fundamental Theoretical Construction in Third Volume of Capital," in P. Sweezy (1970), *Karl Marx and the Close of his System*, Marin and Augusts. Reprinted in Marchionatti, R. (ed), (1998), Vol, III, 1907b, pp.300-18.
8. Foley, Duncan, "The Value of Money, the Value of Labor Power and the Marxian Transformation Problem," *Review of Radical Political Economy*, Vol. 14, No. 2, Sum, 1982, pp. 37-47.
9. _____, *Money, Accumulation and Crisis*, Harwood Academic Publishers, 1986.
10. _____, "Recent Developments in the Theory of Value," Paper Presented to Fourth Mini-Conference on Value Theory at the Eastern Economic Association Meetings in Washing, April 3-6, 1997, [김석진 역음, (2001), "노동가치론의 최근 동향," 『자본주의의 위기와 역사적 마르크스주의』, 과천연구실 세미나, 14, 공감, 1997, pp.247-98].
11. Freeman, A. and Carchedi, (eds)., *Marx and Non-equilibrium Economics*, Edward Elgar, 1996.
12. Freeman, Alan, "The Psychopathology of Walrasian Marxism," in Freeman, A. and Carchedi, (eds), 1996, pp.1-28
13. _____, "Time, The Value of Money, and The Quantification of Value," Presented at 1997, IWGVT(International Working Group on Value Theory) Conference, 1997.
14. Germer, C., "How Capital Rules Money-Marx's Theory of Money in Capitalism," 4th Mini Conference on Value Theory-23rd Annual Convention of Eastern Economics Association, Washington, DC, 1997.
15. Kliman, Andrew, "A Value-Theoretic Critique of the Okishio theorem," in Freeman, A. and Carchedi, eds. 1996.
16. Lavoie, Don, "Marx, the Quantity Theory, and the Theory of Value," *History of Political Economy*, Vol. 18, No. 1, 1986, pp.155-70.
17. Lee, C.O., "On The Three Problems of Abstraction, Reduction and Transformation in Marx's Labour Theory of Value," Ph.D. Thesis, University of London, 1990.
18. _____, "Marx's Labour Theory of Value Revisited,"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No.17, 1993, pp.463-78.
19. Marx, Karl, 1861-3, *Theories of Surplus-Values, Part III*, Progress Publishers, Moscow.
20. _____, 『자본론』, 1권, 김수행 옮김, 제2개역판, 비봉출판사, 2001, 1867.
21. _____, 『자본론』, 2권, 김수행 옮김, 제1개역판, 비봉출판사, 2004, 1885.

22. _____, 『자본론』, 3권, 김수행 옮김, 제1개역판, 비봉출판사, 2004, 1894.
23. Marchionatti, R. (ed), *Karl Marx: Critical Response*, Vol. III, Routledge, 1998.
24. Matusumoto, Akira, "Monetization of Gold and the de Facto Standard of Price-Estimating the Depreciation Rate of the Dollar," 『금융세계화와 한국적 기업지배구조』, 한국사회경제학회 2003년 여름 학술대회(2003년 7월 4일) 발표 논문, 2003, pp.24-48.
25. Naples, M., "Time, Money, Equilibrium: Methodology and the Labor Theory of the Profit Rate," in Freeman, A. and G., Carchedi, (eds), 1996, pp.95-115.
26. Roberts, B., "Marx after Steedman: Separating Marxism From 'Surplus Theory'," *Capital and Class*, No. 32, 1987, pp.84-103.
27. _____, "Embodied Labour and Competitive Prices, a Physical Quantities Approach,"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No. 21, 1997, pp.483-502.
28. Rodriguez-Herrera, A., "Money, the Postulates of Invariance and the Transformation of Marx into Ricardo," in Freeman, A. and G., Carchedi, (eds), 1996, pp.77-94.
29. Sraffa, P., *Production of Commodities By Means of Commodities: Prelude To A Critique of Economic Theo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상품에 의한 상품생산』, 박찬일 역, 비봉출판사, 1986, 1960].
30. Steedman, Ian., *Marx after Sraffa*, NLB, 1977.
31. Wolff, R., B. Roberts, and A. Callari, "Marx's (not Ricardo's) 'Transformation Problem', a Radical Reconstruction," *History of Political Economy*, Vol. 14, No. 4, 1982, pp.564-582.
32. _____, "Unsnarling the Tangle: a Rejoinder," *History of Political Economy*, Vol. 16, No. 3, 1984a, pp.431-435.
33. _____, "A Marxian Alternative to the Traditional 'Transformation Problem'," *Review of Radical Political Economics*, Vol. 16, No. 2/3, Sum/Fall, 1984b, pp.115-35.

Marx's Transformation and Value of Money

Chang-Keun Kim*

Abstract

Marx's theory of money has confronted with the double difficulties, the transformation of value of commodity-money and the emergence paper money. This paper investigate into the value of Marx's commodity-money. It argue that the value of it cannot and is not transformed into its production-price. According to this argument, Marx's theory of money cannot be fallen into a circular argument and it can establish a single relation between labour-time and commodity-money. In addition this investigation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study of value of paper money.

Key Words: Marx, Transformation, Value of Money

* Research Professor, Institute for Social Sciences, Gyungsang University